

풀잎 하나도 그리웠던 시절

— 독재시절, 한 평범했던 목사의 저항이야기

이해동



이해동 hdhanuri@duksung.ac.kr | ● 1962년 한국 신학대학교 졸업. 1970년~1984년 한빛교회 담임 목사. 1976년 3·1구국선언 연루 옥고.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연루 옥고. 1982년~1983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후원회장. 1994년~2002년 KNCC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2000년 한국인권문제연구소가 제정한 제3회 인권상 수상. ● 현재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베트남 진실위원회 공동대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상임 공동대표. 민주공원추진위원회 이사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이사장.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

너무도 허술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써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쓰자니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신약성서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고린도 후서 11:30)"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나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보잘 것 없는 나의 경험을 기억이 나는 대로 적어보려고 한다.

내게 이런 글을 청한 의도는 아마도 70~80년대 군사유신독재하에서 내가 겪은 경험을 공유하지는 뜻이라 여겨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한다.

나는 1970년 3월에 한국기독교장로회 한빛교회 목사로 부임했다. 그때 내 나이 서른여섯이었다. 한빛교회는 1955년에 고 문재린 목사님이 설립한 교회로서 아드님이신 문익환 목사님이 14년여 동안 섬기신 교회다. 문익환 목사님을 비롯한 그 가족과 나는 한빛교회에서 내내 한 식구로 지냈다. 내가 이 한빛교회의 목사가 된 것은 내 삶의 방향과 성격을 결정지어주는 운명적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1970년 3월부터 1984년 6월까지 만 14년이 넘게 한빛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했다. 이 기간은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암울하고 혹독했던 군사유신독재시절이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5·16 쿠데타로 4·19의 숭고한 민주혼을 무참하게 짓밟고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날치기 3선개헌을 통한 장기집권도 모자라 10월 유신이라는 해괴한 독재영구집권체제를 구축하고 온 세상을 암흑천지로 만들었다. 사람으로서의 기본권의 유린은 물론 유신헌법에 대한 단 한 마디의 비난이나 비판도 용납하지 못하는 광기로 국민들의 삶을 움아팠던 시기였다. 또 심복이었던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가 살해된 10·26사건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회복되는가 했더니 신군부의 폭거로 인해 저 끔찍한 광주민중학살이 벌어지고 군사독재가 한층 더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다.

나는 한빛교회를 섬기던 동안에 두 번 감옥에 갇혀 징역을 살았고, 두 번 즉결심판에 넘겨져 경찰서 유치장살이를 했다. 경찰서나 중앙정보부 등에 강제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것은 그수를 헤아릴 수 없이 다반사였고, 74년부터 내가 가족과 더불어 독일로 떠난 84년까지 10여년간은 어디를 가든지 담당형사와 동행을 해야만 했으며, 걸핏하면 가택연금을 당하기 일쑤였다. 우리 집 앞에는 아예 초소가 만들어져 있었고, 연금시에는 4, 5명의 경찰들이 완력으로 나의 출입을 막았다. 심지어는 목사인 나를 주일에배나 수요일 밤에배를 드릴 수 없도록 한 경우까지 있었다. 요즘 젊은이들이 들으면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믿기지 않을 일들이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으레 겪는 일상이었다.

유치장살이를 하게 된 경위와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경위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 유치장살이는 민방위훈련에 불응했다는 이유에서였다. 1977년이었는지 78년이었는지 연도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나 월일은 11월 말경이었다. 종로5가 기독교교회관에 가려고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미아리 길음시장 근처에서 민방위훈련에 걸렸고, 그날 따라 버스들을 노선과는 달리 정릉 골짜기로 몰아넣고 승객들을 내려 대피하라 했다가, 해제되었으니 오르라 했다가, 또 다시 내리라 하는 등 몹시 법석을 떨었다. 승객들은 저마다 불평을 토해냈고, 나 역시 시간에 쫓기고 짜증스런 나머지 불평을 벨었는데 그 말로 인해 경찰관과 시비가 벌어졌던 것이다.

그로 인해 나는 정릉파출소에 강제로 연행되었고, 내 신분을 확인하고 본서에 연락하여 지시를 받는 등 많은 시비 끝에 밤늦게 아무 일 없이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나흘 뒤 나와 시비했던 그 경찰관이 아침 일찍 집으로 찾아와 잠시만 더 물어 볼 일이 있으니 보자고 하여 따라 나갔더니 그 길로 성북경찰서로 직행하여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즉결심판관은 내 변명 같은 것은 아예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즉결로는 최고형인 유치 29일을 선고했다. 실로 황당하기 이를 데 없었다. 너무도 짜증나게 하는 민방공훈련에 대해

“미친 짓 그만 하라”는 말 한 마디 때문에 한 달간의 유치장살이를 하게 되다니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열흘간의 유치장살이를 하고 석방되었다. 나는 밖에 나와서야 내 사건에 대한 보도가 도하 일간지들에 대서특필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그 후 얼마동안 내 사건이 민방위군 훈련장에서 안보의식이 부족한 사람의 예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전해 들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별것도 아닌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자세하게 적는 까닭은 이 사건이 지니고 있는 독재권력의 허구성과 교활성 때문이다.

요즘도 한 달에 한 번씩 민방공훈련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과거에 비해 그 내용이나 방법이 많이 달라졌다고 느낀다. 과거 70~80년대에는 민방공훈련을 통해 금방이라도 북한이 쳐내려올 것처럼 온 국민을 전쟁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분단 상황에서 역대 독재권력들은 북한의 남침위협을 한껏 부풀림으로써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유지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방공훈련은 그와 같은 독재체제 유지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소에 나는 이 민방공훈련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날 워낙 극성스럽게 하는 바람에 짜증 섞인 불평을 한 것이 도화선이 된 것이다. 하기야 요즘도 북한의 남침야욕이 상존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변하고 있는 세력이 적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우리의 뒤틀린 안보의식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실감하고, 서글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나는 또 하나의 독재권력의 교활성을 엿보게 된다. 내가 즉결심판에 넘겨진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당일이 아니었고, 당일에는 무사히 귀가했다가 나흘 뒤에 기만적인 방법으로 집에서 불러내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음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내가 추리한 바로는 그 까닭은 대략 다음과 같다.

당시 나는 ‘서울지구 인권선교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다. 그날 종로5

가 기독교교회관에 가는 것도 그 협의회와 관련된 회의를 소집해 놓았기 때문이었다. 의제는 '인권주간행사건'이었다.

70년대 우리나라에서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의 중심지는 종로5가 기독교교회관이었고, 그 주체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이끄는 교회세력이었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공지의 사실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일찍부터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이 들어 있는 주관을 '인권주간'으로 설정하고 인권주간 행사를 매년 해 왔다. 이 인권주간 행사를 서울지구 인권선교협의회가 주관했다. 나는 그날 내가 소집해 놓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그해 인권주간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 내가 없다고 해서 인권주간행사가 무산될 리는 없겠지만 주관하는 단체의 장을 붙잡아 둬으로써 어떻게든 행사를 방해해 보려는 의도가 있었음은 분명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만약 사건 당일 나를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즉결에 넘겼더라면 열흘간의 유치장살이를 하고 나와서 그 인권주간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공권력이 이렇듯 교활하고 야비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서글픈 시절을 우리는 오랫동안 겪었다.

두 번째 유치장살이는 1979년 10·26사건 후 11월 24일 명동 YWCA에서 일어난 이른바 '위장결혼식 사건' 때문에 겪었다. 당시 특수수사대에 연행되어 약 일주일간 조사를 받은 후에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구류 20일을 선고 받고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역시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열흘간의 유치장살이를 하고 나왔다.

이 YWCA 위장결혼식 사건은 우리 민주진영이 신군부의 집권 시나리오에 의한 공작에 말려든 징후가 없지 않다. 10·26사건 이후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전두환이 주도하는 보안사의 폭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혹독한 보안사 고문에 엄청난 고초들을 겪었다. 다른 분들에 비하면 나는 약과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른 많은 분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인다.

이제 징역을 산 이야기를 해 보련다.

내가 처음 감옥에 간 것은 1976년 3월이었다. 이른바 '3·1민주구국선언 사건'에 연루되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하도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1심에서는 3년인가 2년인가의 실형을 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석방되었다. 3월 3일 새벽에 집에서 연행되어 그해 12월 29일에 석방되었으니 나의 첫 번째 감옥살이는 만 10개월, 정확히 295일간이었다.

흔히 '명동사건'이라 불리는 '3·1민주구국선언사건'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의 일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건일 수도 있지만 1972년 박정희의 유신 철권통치가 시작된 후 가장 큰 정치적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으며, 유신통치에 막대한 타격을 가한 사건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의 특별선언 하나로 헌정을 중단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시작된 박정희의 유신통치는 그 유신헌법 자체마저도 제쳐둔 채 긴급조치만을 가지고 통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 2호를 선포한데 이어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까지 선포된 후 박정희 대통령이 비명에 간 10·26 사태로 유신통치가 종언을 고하게 된 1979년 연말까지 긴급조치통치는 계속되었다. 긴급조치 9호란 유신헌법에 대해서 여하한 비판이나 비난도 위법으로 처벌받게 되는 무소불위의 악법이었다. 3·1민주구국선언사건이 일어난 1976년 3월은 이렇듯 서슬이 퍼런 긴급조치 9호로 말미암아 온 땅이 얼어붙어 무거운 침묵이 강요되던 때였다.

암울한 현실에서 문익환 목사님은 민족의 얼이 깃든 3·1절을 앞두고 비장한 결단을 했다.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어떻게든 강요된 침묵을 깨고 바른 말을 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3·1민주구국선언서' 초안을 작성하여 거기 서명할 인사들을 접촉하기에 이르렀다. 그때의 문익

환 목사님은 마치 신들린 사람과 흡사했다. 이리 뛰고 저리 달리면서 여러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선언문 내용을 수정 보강한 끝에 '3·1민주구국선언서'가 확정되었고, 최종적으로 선언서에 서명하신 분들은 윤보선, 함석헌, 정일형, 김대중, 윤반용, 서남동, 문동환, 안병무, 이문영, 이우정 등 열 분이였다. 그리고 나는 문익환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다만 이 선언문 등사를 도왔을 뿐이였다.

이 선언서는 마침내 1976년 3월 1일 밤 가톨릭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3·1절 기념미사장에서 발표되었다. 선언서 낭독은 고 이우정 선생이 했다. 이 선언서를 명동성당에서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3·1절 기념미사를 주관한 가톨릭정의구현사제단 소속의 신현봉, 문정현, 함세웅, 김승훈, 장덕필, 김택암, 안충서 등 신부님들의 동의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였다. 그날 3·1절 기념미사는 평온 속에 끝났다. 700여 명의 참석자들 앞에서 3·1민주구국선언서가 낭독되었을 뿐 아무 일도 없이 관련자들은 모두 귀가했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밤잠을 잤다. 그런데 그 다음날 관련자들이 연이어 연행되기 시작했고, 일주일 남짓 당시 중앙정보부 제6국에서 조사를 받은 끝에 일부는 구속송치되고, 일부는 불구속입건되기에 이르렀다.

조용한 가운데 거행된 3·1절 기념미사가 갑자기 세인들의 관심거리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76년 3월 10일부터였다고 한다. 이날 오후 서울지검 서정각 검사장이 '일부 재야인사들의 정부전복 선동사건'이 발생하여 관련자 20여 명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기자들에게 발표했기 때문이다. 선언서 한 장 발표한 것을 가지고, 그것도 고작 7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성당미사에서 단지 그것을 낭독했을 뿐 농성이나 시위 한 번 없이 조용히 끝낸 것을 놓고 '정부전복 선동사건'이라고 침소봉대함으로써 엄청난 정치적 사건으로 확대해 버린 것이다. 그렇게 큰 사건으로 부풀린 까닭은 필경 그 선언서의 서명자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의 최대의 정적으로서 두려움의 대상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3.1 민주구국선언’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던 날, 성공회에서 기도회를 마친 사람들이 대법원 재판장으로 행진하는 모습. 앞줄 왼쪽부터 이우정, 안병무, 함석헌, 이해동.

3·1민주구국선언사건 관련 피고인은 모두 18명이었다. 그 가운데 구속이 11명이었고, 7명은 불구속이었다. 구속된 분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고 문익환 목사, 고 서남동 목사, 고 윤반웅 목사, 고 안병무 박사, 문동환 목사, 이문영 박사, 신현봉 신부, 문정현 신부, 함세웅 신부 그리고 나였고, 불구속된 분들은 고 윤보선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고 함석헌 선생, 고 정일형 박사, 고 이태영 선생, 고 이우정 선생 그리고 고 김승훈 신부와 장덕필 신부였다.

이 3·1민주구국선언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관련 피고인 18인 모두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점이다. 개신교 목사가 여섯, 가톨릭 신부가 다섯으로 성직자만 무려 11명이나 되었고, 나머지 여섯 분도 장로님이 두 분(이우정, 이문영)이나 되고 신학교 교수님 한 분(안병무)을 포함하여 윤보선, 함석헌, 이태영 등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독실한 신앙인들이었다. 또 하나 특기할 것은 이 사건이 정치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재야 기독교세력과의 유대를 밀접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점이다. 이 사건 관련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평소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왕래가 거의 없던 분들이었다. 나만 해도 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처음 대면한 것이 이 사건과 연루되어 구치소로 넘겨지기 직전 검찰청 대기실에서였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김대중 선생과 재야기독교세력 사이에 깊은 동지적 결속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그 동지적 유대는 끈끈하고 돈독하다.

나의 두 번째 감옥살이는 1980년 5월 17일 밤부터 시작되었다. 이른바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된 것이다. 나는 80년 5월 17일 밤에 중앙정보부(지금의 국정원)로 연행되어 두 달여 동안 지하 2층에서 모진 심문을 받았고, 그해 7월14일에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었던 서울구치소로 구속 송치되었다. 그해 11월 4일 항소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4년형을 받은 날 남한 산성에 있던 육군교도소로 이감되었고, 대법원의 상고심에서도 당연히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으며, 이듬해인 1981년 1월 31일 군산교도소로 다시 이감되었다가 그해 5월 11일 석가탄일에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나의 두 번째 징역살이는 연행된 날로부터 5일이 모자란 만 1년간이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는 중앙정보부 지하 2층에서의 두 달 동안이었다. 그때의 처절했던 경험들을 되새겨 보려고 하니 부끄러움이 앞선다. 1980년 5월 17일은 토요일이었다. 밤 10시경 나는 다음날 드릴 주일 예배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장한 괴한 네 사람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신발을 신은 채 집안을 샅샅이 수색하고 나를 강제로 연행하려 했다. 나는 내일이 주일이니 주일예배를 인도한 후 자진 출두하겠노라고 버티어 보았지만 통할 리 없었다. 그들은 권총을 빼들고 만약 거부하면 모가지 를 빼 가지고라도 가야 한다며 위협했다. 나는 속수무책으로 그들에게 이끌려 중앙정보부 지하 2층의 한 방에 던져졌다. 그 후 60여 일 동안 거기서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린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로 나는 전전긍긍해야만 했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그런 곳일 거라 여겨진다.

나는 완전히 외부와 차단되었다. 낮인지 밤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날씨가 맑은지 흐린지, 비가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60여 일 동안 하늘 한번 쳐다볼 수 없었고, 풀잎 하나 구경하거나 만질 수가 없었다.

하늘이라도 한 번 쳐다볼 수 있었으면, 나뭇잎이나 풀잎 하나라도 만져볼 수 있었으면, 아내의 얼굴이라도 한 번 보고 마지막 유언이라도 남기고 죽을 수 있었으면,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들의 손목이라도 한 번 쥐어보고 볼이라도 한 번 비벼보고 죽을 수 있었으면, 그리스도의 뜻과 사랑을 늘 함께 나누며 살아온 교인들이라도 한 번 만나보고 죽을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함이 너무도 절실한 소원이었다.

3, 4일씩 잠을 못 잔 적이 여러 번이었고, 발가벗기우고 온갖 수모를 당한 적도 많았으며, 어찌나 많이 맞았던지 앓는 건 물론이고 누울 수조차 없어서 사흘간을 엎드려 지내야만 했던 적도 있었다. 온 몸이 피멍으로 뒤덮여 목불인견이었다. 그 피멍을 빼느라고 날고기를 포로 떠서 멍이 심한 상처부분에 붙이고 엎드려 있었는데, 그 고기가 상해 가는 냄새는 정말이지 참기 힘든 악취였다.

이런 밤낮을 60여 일 동안이나 지냈고, 그런 과정에서 나는 결국 수사관이 불러 주는 대로 허위진술서를 써 줄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우리들은 내란을 음모한 것으로 죄가 꾸며졌다. 수사관이 불러 주는 대로 쓰다가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어서 못 쓰겠노라고 하면 이내 고문을 당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것만은 쓸 수 없다고 버티면, 그럼 어디 죽어 보라며 다시 고문을 했다. 이러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결국 나는 죽지 못하고, 이미 짜여진 각본에 따라 불러 주는 대로 사실이 아닌 거짓진술서를 써 줄 수밖에 없었다. 일점일획도 어김없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모조리 써 주었다.

이 경험은 나로 하여금 깊은 자괴지심(自愧之心)에 젖게 만들었다. 서울구치소로 넘어온 후 첫 가족면회가 허락되었을 때 나는 내 아내에게 한빛교회 담임목사직의 사표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설교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매 주일마다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해왔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 어디서나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라고만 해야 한다고 설교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그 ‘예’와 ‘아니오’를 전혀 분명히 하지 못한 것이다. 무슨 염치로 설교할 수 있던 말인가? 더욱 더 심각한 점은 내가 그런 허위진술을 해 줌으로써 그 피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었다. 나의 허위진술에 따른 피해를 내가 받는 것이라면 그나마 체념이라도 할 수 있을 터이나 그 결과 몽땅 김대중 죽이기에 귀착되는 것이니 결국 나는 김대중 선생을 죽임으로 몰아넣는 데 일조를 하는 꼴이 되고 만 것이었다. 무슨 수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던 말인가? 나는 영원히 그 부끄러움을 지고 살아야 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매에 장사 없다’는 속담이 있거니와 나는 매 앞에 처절하게 굴복당했다. 사람이 그토록 왜소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무력해지고 비굴해질 수 있을까? 나는 목사가 아니었다. 아니,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살고 싶다는 생존 본능에 매달려 양심은 고사하고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도 팽개친 채 불려 주는 대로 거짓진술서를 써주고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문혀 꺾꽂이를 찍어준 겁장이, 못난이, 변절자, 배신자였다.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내 머리에 숯불을 부은 것처럼 낫뜨거움을 느낀다.

이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서 내게 관련된 혐의사실들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한 나라를 뒤엎자는 내란음모라는 것이 어찌면 그토록 허술할 수 있던 말인가! 진술서나 진술조서에서 내가 추궁당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실로 기가 찰 일들로 가득하다.

당시 종로5가 기독교교회관에서 매주 열린 금요기도회에서 한 내 설교나, 심지어 내가 시무하는 한빛교회에서의 설교내용을 문제삼아 유언비어 유포라고 하는가 하면, 감옥에서 얻은 지병 때문에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어 작고한 한빛교회 신도였던 동아투위(東亞言論自由守護鬭爭委員會) 제2대 위원장 고안종필 선생의 영결식(1980년 3월 4일 서울대병원 영결식장)을 집례하면서 “안종필 위원장의 죽음은 병사가 아니라 타살이요, 자연사가 아니라 순교입니다”라고 한 말을 트집잡아 “누가 죽였느냐?”고 다그쳤다.



동아투위위원장 안종필 선생의 영결식을 집례하는 모습

그리고 한빛교회 대학생들의 정례모임인 토요일집회에서 목사가 자기 교회 대학생들과 나눈 대화, 또는 1980년 4월 20일이 주일이었는데 4·19 바로 다음날이기 때문에 오후에 청년들과 함께 4·19 묘소를 참배하고 거기서 나눈 대화 등을 허가받지 않은 불법회합이라 하여 기소했으며, 김대중 선생 생일잔치에서 만난 여러 사람과의 일상적인 대화나, 오래 전부터 가져 온 신앙동지들간의 월례모임 혹은 당시의 상황(1980년 이른바 서울의 봄)에서 항다반恒茶飯하게 있을 수 있었던 공개된 모임, 이를테면 내란음모현장으로 각색된 1980년 5월 12일의 북악파크호텔에서 있었던 시국간담회나, 모친상을 당한 한완상 박사 상가에서의 5월 14일 아침 문상모임 등을 마치 큰 범법 행위나 저지른 것처럼 침소봉대하여 호들갑을 떨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죄라면 범법자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먹고 싸고 잠자는 것 이외는 무엇이나 가져다 붙이면 죄요, 몰아세우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우리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세상과 세월을 오래도록 살았다.

정치적인 문제로 두 번이나 감옥살이를 했지만 나는 결코 정치인이 아니다. 평범한 일개 목사일 뿐이다. 그것도 지극히 작은 지교회肢教會의 목회목사牧會牧師일 뿐이다.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961년 정월부터 교역教役

을 시작하여 2002년 6월 은퇴할 때까지 나는 교회 울타리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 다만 나는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과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이 세상 구석구석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치고 실현되어야 할 진리라고 믿고, 오직 그 실현을 위해 지극히 작은 소리와 몸짓으로 말하고 행동했을 따름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불의한 권력 앞에서는 모조리 용납될 수 없는 범법행위가 된 것이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은 사실은 거꾸로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의 내란이었다. 신군부는 10·26사건과 더불어 12·12반란을 거쳐 은밀하게 국민 각본에 따라 당시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60여 일에 걸친 잔인한 고문을 통해 그들의 내란을 거꾸로 김대중내란음모사건으로 각색하여 연출해 냈던 것이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에서 나의 목회역정(牧會歷程)을 빠뜨릴 수는 없다. 나의 40년에 걸친 교역(敎役)은 결코 화려하지도 못했고, 성공적이지도 못했다. 전도사 시절을 제외하고 다섯 교회를 섬긴 셈이다. 인천교회에서 7년, 한빛교회에서 15년, 독일 라인-마인지방 한인교회 4년, 귀국하여 수도교회에서 8년, 마지막으로 한우리교회에서 6년을 섬겼다. 그 다섯 교회 가운데 교회로서 갖출 것을 어느 정도 이미 갖추고 있던 교회는 수도교회 하나뿐이었다. 그 외에는 모두가 개척교회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나의 목회(牧會)일생은 결국 개척교회로 시작하여 개척교회로 마친 것이다. 하느님께서 내게 맡기신 달란트는 개척하는 일이었지 않나 싶다.

내 생애에서 한빛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자못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서른여섯에 한빛교회에 부임하여 쉰 살까지 섬겼다. 나는 나의 황금기를 한빛교회에서 보냈다. 남이 보기에는 매우 힘겨운 시절로 여겼을지 모른다. 늘 사복경찰이 감시의 눈길을 번득이는 교회, 심지어 여자경찰간부가 교인으로 위장 잠입하여 열성교인으로 행세하는 일까

지 있었다. 목사가 수시로 연금당하고, 연행되고, 구속되고 하는 일들이 빈번했으니 교인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겠는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교회예배에 출석하고 한결같은 신심으로 교회를 지켜준 순하다니 순한 교우들이 정말 고맙고 자랑스러웠다. 한빛교회의 그 좋은 분위기는 지금도 여전하다. 내가 84년 독일로 떠난 후 이내 담임목사로 부임하신 유원규 목사님이 오늘날까지 만 20년이 넘게 목회하고 계신다. 나는 2002년 6월 목사시무를 은퇴한 후 작년부터 교인으로 등록하고 매주 유 목사님의 감동적인 설교를 들으며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70년대 우리 역사에서 한빛교회는 훌륭한 몫을 담당했다. 세 가지 일을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갈릴리교회가 매주일 오후 2시 30분에 한빛교회당에서 모인 일이다. 70년대 초 많은 교수들이 독재권력에 의해 대학으로부터 축출되었다. 특히 기독교교수들이 많았다. 갈릴리교회는 해직당한 기독교교수님들이 주축이 되어 나치 하에서 일었던 독일의 고백교회와 같은 참교회를 만들어 보자는 의도로 시작한 교회다. 1975년 8월 해방기념주일을 기해 당시 명동에 소재했던 흥사단의 대성빌딩을 빌려 예배를 드리기로 시작했다. 그러나 이내 당국의 압력으로 대성빌딩 측에서 임대료를 취소해 버림으로써 할 수 없이 내가 섬기던 한빛교회당을 빌려 예배드리게 되었다.

갈릴리교회 설교는 주로 여섯 분이 돌아가면서 했다. 문익환, 문동환, 서남동, 안병무, 이우정, 이문영 등이었다. 갈릴리교회라 이름지은 것은 신학적 의미가 있었다. 갈릴리는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지역으로서 예루살렘과 대조를 이룬다. 예루살렘은 권력의 중심부로서 기득권자들의 무대요, 갈릴리는 소외된 지역으로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고장이다. 이른바 민중들의 고장이다. 갈릴리교회 소문은 널리 퍼졌고 뜻있는 분들의 참여가 늘었다. 해외교회에서 손님들이 오면 으레 들려 가는 순례지가 되었다. 필히 기억해야 할 점은 이 갈릴리교회가 3·1민주구국선언사건의 산실이었고, 또한 후일 민중신학의 산실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설교자 여섯 분 모두가 3·1민주구



한빛교회에서 구속자 석방환영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국선언에 서명하신 분들이고 또한 민중신학을 수립하신 신학자들이다.

두 번째, 한빛교회당에서 매주 목요일 10시에 목요기도회가 열린 일이다. 본시 목요기도회는 1974년 4월 민청학련사건이 발생한 후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당시 젊은 목사들의 자발적인 기도회로 시작해 차츰 구속자 가족들의 참여와 더불어 그 열기가 대단했었다. 그러던 1975년 4월, 전격적인 인혁당 사형집행사건이 있는 후 종로5가에서 모일 수 없게 되자 구속자 가족들의 집에서 돌아가며 모이던 것을 3·1민주구국선언사건이 일어난 후 한빛교회당에서 모이게 되었고, 목요기도회는 1979년 10·26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세 번째, 구속자석방환영예배를 한빛교회당에서 드린 일이다. 박정희 시절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도 많았지만 또 절기마다 석방하는 일도 잦았다. 구속자 석방이 있는 날이면 그날 밤 으레 한빛교회당에서 석방환영예배가 열렸다. 석방된 사람들도 그날 밤은 당연히 한빛교회에 가는 것으로 알았고, 또 석방자를 만나려는 사람들도 그날 밤에 한빛교회에 가면 어김없이 만나게 될 것으로 알았다. 장소에 대해서 목사인 내게 허락을 받고 말고가 없었다. 반가운 사람들이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었으며, 석방자들의 때묻지 않은 감동적인 증언에 함께 울고 웃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는 남 앞에 자랑스레 내어 놓을 만한 것은 결코 못된다. 어찌다 보니 어둡고 왜곡된 우리 현대사의 회오리 속의 한복판에 내가 놓여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그것을 잘 이겨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었을 뿐이다.

나는 감옥 가는 것이 싫었다. 단지 싫은 것만이 아니라 행여나 감옥에 갈까봐 겁이 났다. 그래서 말을 조심스레 가려 했고, 행동도 그 시대를 사는 목사로서 최소한의 면피나 할 정도로 하였을 뿐 과격한 행동은 삼가며 주춤거렸다. 감옥에 갈 것을 각오하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 설마 감옥까지야 가랴 싶었는데 감옥살이를 두 번이나 하게 된 것이다. 고 함석헌 선생님께서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다. “하느님의 발길에 채이면 별수 없어”라는 말씀이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하느님의 발길에 채인 셈이다.

비단 감옥에 간 경우만이 아니다. 내가 살아 온 삶을 돌아켜보면 내 의지대로 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다.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로매진하여 목적을 이룬 적이 없다. 전혀 계획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앞에 닥치고 그때마다 나는 떠밀려 주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원하지 않은 감옥에도 갔고, 외국에 나가 살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독일에 가서 만 4년 동안 살다오기도 했고, 대기업인 삼성 밥을 삼년 반씩이나 먹었으며, 어찌다 보니 분류사학들의 임시이사장이라는 버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며 지금도 살고 있다. 앞으로 내게 주어진 남은 생이 얼마일지 나는 모른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닥칠지도 나는 모른다. 따지고 보면 잘 산 일보다는 잘못 산 일이 훨씬 더 많다. 자랑할 일은 별로 없고 닳을 들기가 부끄러운 일들이 가득하다. 그러나 어찌 하겠는가? 내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어떤 일이 닥치든지 거기 순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조심조심 살아가야겠다. ■